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한  
강원도립극단 대표공연

# 신명가득 연극한판 메밀꽃 필 무렵



주최·주관

(재)강원도립극단  
Gangwon Provincial Drama Theater

후원

강원도

춘천시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사)강원도민회중앙회

재대구강원도민회(053-745-5727)

사단법인  
강원연극협회

서울연극협회  
THE SEOUL THEATER ASSOCIATION

사단법인  
대구연극협회

재단법인  
춘천시문화재단  
Chuncheon Cultural Foundation

# 공연일정 Performance schedule

---

- 2. 15.** WED 14:00, 19:00 | 강릉단오문화관
- 4. 09.** SUN 15:00, 18:00 | 대구 수성아트피아 용지홀
- 4. 15.** SAT 19:00 | 홍천문화예술회관
- 4. 21.** FRI 15:00 | 춘천문화예술회관
- 4. 22.** SAT 16:00, 19:00 | 춘천문화예술회관
- 4. 26.** WED 16:00, 20:00 | 서울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 5. 25.** THU 19:00 | 정선 아리랑센터
- 5. 31.** WED 19:00 | 평창문화예술회관

## STAFF

작가\_정범철 / 연출\_윤정환 / 예술감독\_선옥현

안무\_조성희(강원대 무용과 교수) / 작곡·음악감독\_엄태환 / 의상디자인\_드레스이루다(대표:박현주) / 무대디자인\_유잠스튜디오(대표:유재현)

조명디자인\_Magic Lighting(대표:박종화) / 분장디자인\_갤러리Do메이크업(대표:신우경)

조연출\_이지영 / 연습·공연진행\_황인욱, 김태용 / 무대감독\_이형진 / 무대조감독\_최종원 / 무대제작\_서울무대장치(대표:이정조)

음향\_탑사운드(대표:박준식) / 소품제작\_이야기무대제작소 / 무대설치\_A&S(대표:김주상) / 무대전환\_김동현, 안병로

영상\_저스트이팩트(대표:김장연) / 거리퍼포먼스 움직이는 조각상\_통통창의력발전소(대표:김정훈)

사진·영상·기록\_영상문화프로덕션 이리(대표:박동일) / 기획·홍보\_문화상회 이음(대표:장학철) / 인쇄\_웹디자인(대표:김부연)

기장글씨\_김광희 / 번역\_김승완(영어), 선주뢰(중국어), 이수연(일본어) / 제작총괄\_권영희 / 제작진행\_이성희 / 홍보\_김정현 / 예술부장\_황헌중

## congratulatory message 축하의 글

### 하나된 열정으로 겨울 축제를 기다립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올림픽과 월드컵에 이어 동계올림픽이라는 세계 최고의 겨울축제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내년 2월과 3월은 평창올림픽의 표어처럼 '하나된 열정'으로 온 국민이 함께 임하고 누려야 할 축제입니다. 또한 대회가 개최되는 전 기간은 세계인 앞에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널리 알리는 문화올림픽의 향연이어야 합니다. 강원도는 열심히 그 준비를 해왔고 그 결실 중에 하나가 강원도립극단이 준비한 연극 '메밀꽃 필 무렵'입니다. 평창이 고향인 국민소설가 이효석의 원작을 전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민족적이며 세계적인 대중극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부디 오셔서 겨울 축제를 미리 즐기시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함께 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지사 **최부순**

## 초대의 글 Invitation

### 강원의 대표 공연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멋과 문화를 창조했던 문화민족이며 앞으로도 우리가 세계 앞에 자랑할 것은 그 문화의 힘일 것입니다. 강원도립극단은 2014년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한 이래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 결실이 바로 여러분이 보실 작품 '메밀꽃 필 무렵'입니다. 2016년 초연과 순회공연을 통해 더욱 다듬어지고 지난 겨울 다시 연습과 투자를 통해 더욱 화려해진 모습으로 관객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오셔서 맘껏 즐겨주시고 더불어 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연을 초대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강원도, 시·군 관계자분들, 특히 서울, 대구 지역의 관계자분들, 강원도민회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강원도립극단 예술감독 **신욱현**

## 출연진 Cast



**손병호** 허생원역  
Huh (Peddler)  
**Son Byunggho**



**강진휘** 허생원역  
Huh (Peddler)  
**Kang Jinhwi**



**양흥주** 조선달역  
Cho (Peddler)  
**Yang Heungju**



**이재욱** 나귀역  
Huh's Donkey  
**Lee Jaewook**



**이선희** 총주댁역  
Ms. Chungju  
**Lee Sunhee**



**김동민** 젊은생원 외  
Huh in his 20s  
**Kim Dongmin**



**홍의준** 동이역  
Dongee (Peddler)  
**Hong Euyjun**



**고문선** 평창댁 외  
Ms. Pyeongchang  
**Go Munseon**

## Cast 출연진



**계현욱** 평안도 나귀 외  
Donkey from north  
Gye Hyunuk



**황인욱** 평안도 장사꾼 외  
Seller  
Hwang Inwook



**전시연** 암나귀 외  
Female Donkey  
Jeon Siyeon



**선승수** 전라도2 외  
Guy from jeolla-do  
Seon Seungsu



**정혜지** 분이역  
Boone  
Cheong Hyeji



**하경한** 전라도 나귀 외  
Donkey from south  
Ha Gyeonghan



**박가영** 시장상인 외  
Seller  
Park Kayoung



**안형국** 충청도 장사꾼 외  
Seller  
An Hyeongguk

## 출연진 Cast



**김상나** 무용수 외  
Dancer  
Kim Sangna



**이준철** 무용수 외  
Dancer  
Lee Juncheol



**안유리** 무용수 외  
Dancer  
An Yuri



**김태랑** 무용수 외  
Dancer  
Kim Taerang



**엄태환** 악사  
Musician  
Eom Taehwan



**이단비** 악사  
Musician  
Lee Danbi



**김한림** 악사  
Musician  
Kim Hanrim



**전찬성** 악사  
Musician  
Jeon Chanseong



**송수민** 악사  
Musician  
Song Soomin



**고안나** 악사  
Musician  
Koh Anna

Production photograph 제작앨범



# 메밀꽃 필 무렵 각 장별 요약

## 1장. 봉평장날

물건을 파는 장돌뱅이들과 사려는 손님들로 가득한 강원도 봉평 장날, 주인공 허생원도 오랜친구사이인조선달과이곳에서장사를여는데,특히허생원은이곳봉평장에올때마다 25년 전 봉평에서 만났던 첫사랑의 여인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로 여전히 마음이 설렌다. 그런데 유독 손님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젊은 장돌뱅이 동이를 보고 허생원은 샘이 나고 화가 난다.

## 2장. 늙은 나귀의 사랑

허생원은 동이와 한바탕 말싸움을 하고는 봉평의 유명한 주막(식당) 충주집으로 가버리고 남은 친구 조선달은 허생원의 나귀를 찾는데, 이제는 늙어버린 수컷이지만 그 나귀가 장터에서 만난 암나귀를 쫓아다니는 걸 본다. 조선달이 나이값을 하라며 핀잔을 주지만 나귀는 이런 느낌은 처음이라며 사랑의 감정을 암나귀에게 표현한다.

## 3장. 충주집

봉평장터 주막 충주집 주인 충주댁은 젊은 장돌뱅이 동이의 춤솜씨와 입담에 반한다. 동이는 충주댁에게 질편한 농을 던지는데 보다 못한 허생원이 끼어들며 '애비가 그렇게 가르치더냐'고 호되게 나무란다. 동이는 자신은 아버지가 없다고 화를 내며 나가 버린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이는 허생원의 나귀가 봉변을 당하는 것을 알려 주며 두 사람은 화해를 하게 되고 다음 장터인 대화장으로 함께 밤길을 떠난다.

## 4장. 메밀밭의 하얀사랑

달밤, 허생원과 나귀, 동이, 조선달이 하얀 메밀꽃밭을 걷는다. 허생원은 버릇처럼 25년 전 자신의 첫사랑 이야기를 꺼낸다. 25년 전, 젊은 허생원은 메밀꽃밭에서 울고 있던 돌배나무 집 딸 분이를 만났고 그 만남은 물레방앗간에서의 첫 밤으로 이어진다. 밤이 새고 자신의 저고리를 분이에게 입혀주고 헤어지지만 무슨 사연인지 그 뒤로 다시는 그녀를 만나지 못 하게 된다. 허생원은 지금도 그 사랑을 간직하고 있다.

## 5장. 사랑을 찾아서

허생원 일행은 험준한 여울목 계곡을 건너게 되는데 물살에 휩쓸린 허생원과 나귀를 동이가 구한다. 그 와중에 허생원은 동이가 자신처럼 왼손잡이인 것을 확인한다. 둘은 더 친해지고 동이는 허생원의 첫사랑 얘기에서 들은 저고리 사연처럼 자신의 어머니도 저고리 하나를 항상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고 전해준다. 허생원은 혹시 동이가 자신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하게 되고, 대화장을 지나면 동이 어머니가 산다는 제천으로 가자고 한다. 허생원은 동이와의 동행에 감사하며 평생을 찾아 헤맨 첫사랑을 만날 지도 모른다는 기대로 가슴이 벅차온다.

# When Buckwheat Flowers Bloom Play Summary

---

## Scene 1. The Bongpyeong Street Market

Korean local street markets open every five days. Peddlers wander from market to market to sell their goods in every other local market every day. Huh, a peddler and the main character, opens his booth to sell his goods with his buddy Cho in the Bongpyeong Market in Gangwon-do where other peddlers and nearby villagers who want to buy goods all gather. The Bongpyeong Market reminds Huh of a woman he met and fell in love with in the town twenty five years ago, and he always expects to hear some news about her whenever he visits the market. Then in the market, he gets mad and jealous when he sees Dongee, a young peddler, attracting all the customers' attention.

## Scene 2. The Love of An Old Donkey

Having had an argument with the young peddler, Huh is heading for Ms. Chungju's Tavern expecting to hear some news about the woman he has never met again for twenty five years.

His buddy Cho sees Huh's old donkey following a female donkey he has seen in the market. Being told he is too old to love, the donkey expresses his feelings to her.

## Scene 3. Ms. Chungju's Tavern

Ms. Chungju who runs a tavern near the Bongpyeong Market is having a great time with Dongee, the young peddler, who is good at dancing and talking. When Dongee makes an indecent joke at Ms. Chungju, Huh scolds him mentioning his father, which leads to Dongee's storming out of the tavern with the statement that he has no father. After a while, however, Dongee helps Huh's donkey get out of trouble and they make up. The three peddlers leave for the Daehwa Market, the next destination, together at night.

## Scene 4. The Love in a White Buckwheat Field

Traveling in the moonlight, the peddlers walk across a field full of white buckwheat flowers in bloom. Whenever Huh sees the field, he tells the story of his romance where he fell in love with a woman for the first time in his life. Twenty five years ago, Huh met a lady by chance in that buckwheat field full of white flowers. He spent the night with her, and gave his shirt to her when they parted at dawn. Though he has never seen her again after the night, he cherishes the memory of it.

## Scene 5. Looking for Love, Full of Hope

When Huh and his donkey are swept away in rapids, Dongee rescues them. Huh notices that Dongee is left-handed as he himself is. They get closer, and Dongee says that his mother cherishes an old shirt of a man. Thinking Dongee might be his son, Huh suggests they head for Jecheon where Dongee's mother now lives after visiting the Daehwa Market. Expecting to meet his first love he has been looking for in his entire life, he is full of hope.

# 메밀꽃 필 무렵 작품소개

## 한국 대표 단편소설, 대중극으로 재탄생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은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단편소설 중 하나이자, 작가 이효석(1907-1942)의 대표작이기도 하다. 강원도 평창에서 출생한 가산(可山) 이효석은 고향 부근인 봉평·대화 등 강원도 산간마을 장터를 배경으로, 장돌뱅이인 허생원과 성서방네 처녀 사이에 맺어진 하룻밤의 애뜻한 인연을 중심으로 매우 시적이며 애뜻한 서정을 풀어냈다. 1936년 『조광(朝光)』 10월호에 첫 발표된 이 작품은 당시에 큰 인기를 끌었으며, 1967년엔 영화로 1986년엔 TV문학관에서 드라마로 제작되었다. 2012년엔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어, 제17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출품되기도 했다.

(재)강원도립극단은 평창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실현하려는 강원도의 염원 속에 2013년 창단되었다. 매년 작품 개발에 힘을 쏟아 <허난설헌>, <DMZ 동화>, <메밀꽃 필 무렵> 세 작품이 개발되었고, 가장 세계인과의 소통이 용이하다고 평가를 받은 이 공연을 문화올림픽 도립극단 대표공연으로 선정하기에 이르렀다.

총체연희극(Total performance theater) <메밀꽃 필 무렵>의 줄거리는 이렇다. 때는 1900년대 초, 평창 하고도 봉평장. 주인공인 장돌뱅이 허생원은 늙은 나귀 한 마리 그리고 친구인 조선달과 짝을 이뤄 강원도 땅 장터를 전전하는데, 봉평장에서 손님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젊은 장돌뱅이 '동이'를 보고는 괜한 시기심이 발동한다. 게다가 인기 많은 장터 주막 '총주집'의 주모 총주댁의 마음도 휘어잡은 걸 보고는 급기야 손찌검까지 하는 사태로 번진다. 하지만 동이는 되려 허생원 당나귀가 봉변 당하는 것을 말려주게 되고 결국 그날 밤 대화장 건너가는 밤길을 함께 걷게 된다. 달밤, 메밀꽃밭을 걸으며 허생원은 버릇처럼 25년 전 이 메밀밭에서 겪었던 기이한 인연, 자신의 첫사랑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와중에 동이가 홀어머니 아래서 자랐으며 그 어머니의 고향도 봉평임을 듣게 된다. 그리고 동이가 자신과 같은 '원손잡이'인데다 자신도 옛날 여인에게 헤어지며 저고리를 건네줬었는데 동이 어머니 또한 저고리 하나를 곱게 간직하고 있던 얘기를 전해 듣고 허생원은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과연 두 사람은 평생을 기다렸던 그 인연의 끝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인가!

# When Buckwheat Flowers Bloom **Introduction**

---

## A Masterpiece of Korean Literature Re-created as an Entertaining Show

“When Buckwheat Flowers Bloom” by Lee Hyoseok(1907–1942) is one of the most famous short stories representing Korean literature. The story is about memory and hope of a man who can't forget his old romance. It is described poetically in a pastoral scenery of mountainous country of Bongpyeong and Daehwa, which are near the hometown of the writer who was born in Pyeongchang in Gangwon-do. The writer's masterpiece was very popular when it was first published in the October issue of the magazine <Chogwang> in 1936. It was adapted to a film in 1967 and to a TV drama in 1986, and the animation adaptation was screened in the 17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n 2012.

The Gangwon Provincial Drama Theater(GPDT) has decided to produce the play adaptation of the story as its main production in 2013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s. Established by Gangwon-do citizens to communicate through theater with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s especially during Pyeongchang 2018, GPDT has developed plays such as *When Buckwheat Flowers Bloom*, *Huh Nansulhun*, and *The Fairy Tale in DMZ*. Among them, *When Buckwheat Flowers Bloom* has been chosen as the main production for Pyeongchang 2018, as it is regarded as more accessible to audience from different cultures.

With its style being called ‘total performance theater’, it is set in the Bongpyeong Street Market in the early 1900s. The main character Huh, a peddler, wanders across Gangwon-do to sell goods in various local markets with his old friend Cho and his old donkey. He visits the Bongpyeong Market where Dongee, a young peddler, attracts great attention from customers. When Huh sees Dongee play around with Ms. Chungju who is popular among peddlers in her tavern, he tries to scold him and ends up having an argument with him. However, they make up when Dongee has gotten Huh's donkey out of trouble, and they start to walk together to the Daehwa Market at night. Walking across a field full of white buckwheat flowers in the moonlight, Huh tells a story of his romance in which he spent a night with a woman in that buckwheat field twenty five years ago. Having told his story, Huh learns that Dongee has a single mother who was born in Bongpyeong, the town where they are now. Dongee is left-handed as Huh himself is, and Dongee says his mother cherishes an old shirt of a man while Huh, twenty five years ago, gave his shirt to the woman he spent the night with when they parted at dawn! Now Huh is full of hope. What is waiting for him after all those years of wandering and looking for his love?

# 荞麦花开时 简介

## 用舞台剧来诠释的韩国短篇小说的代表作!

小说《荞麦花开时》是韩国短篇小说的代表之一,也是作家李孝石(1907-1942)的代表作。李孝石(可山)出生于江原道平昌,小说《荞麦花开时》就是以平昌邻近山村蓬坪、大和的集市为活动背景。小说以小贩许生员与成家姑娘发生的一夜之间的恋情为故事情节展开的纽带,用充满诗意的文笔描写了一段凄美的情缘。1936年该作品初次在《朝光》第10期上刊出,受到广大读者的欢迎,1967年被搬上影幕,1986年又被电视文学馆拍成了电视剧。2012年制作成动画片,并在第17届釜山国际电影节上展出。

江原道立剧团于2013年建团,剧团以实现江原平昌文化冬奥会为主旨,每年潜心致力创作,编排了《许兰雪轩》、《DMZ童话》三部作品,其中《荞麦花开时》被评为更容易与世界各国观众沟通的作品,所以被选为道立剧团的文化奥运会演出代表作。

《荞麦花开时》的整个剧情是这样的(Total performance theater):

故事发生在二十世纪初平昌的蓬坪山村,主人公是做集日生意的小商贩许生员,那天他牵着他的老毛驴和朋友赵先达一起去江原道的地方集市,在蓬坪集市看见年轻小贩‘东伊’独受众人欢迎,嫉妒心起,又见人气很旺的集市酒馆儿老板娘‘忠州家’媳妇儿也对东伊柔情蜜意,终于忍不住动手打了东伊,惹出事端,可是东伊却在许生员的毛驴被众人戏弄的时候,挺身解救了老毛驴,结果那天晚上他们结伴一起去大和集市。走在月夜下的荞麦花田路上,许生员又下意识地讲起了自己25年前在荞麦花田里的那段奇缘,那段刻骨铭心的初恋故事。听说东伊是单身母亲养大的,母亲的老家也在蓬坪,东伊和许生员一样也是‘左撇子’,许生员当时与心爱的女人分手时把上衣留给了她,而东伊的母亲也一直珍藏着一件上衣,许生员心里充满期待,这一切是巧合还是情缘?究竟两人一生都在等待的那份情缘能否再续!

## 蕎麦の花咲く頃 紹介

### 韓国の代表的な小説 大衆劇として生まれる

小説『蕎麦の花咲く頃』は、韓国文学を代表する短編小説の一編であり、作家のイ・ヒョソク(1907 - 1942)の代表作である。カンウォンドのピョンチャン出身であるカサン(可山)イ・ヒョソクは故郷付近のボンピョン、デファ等、カンウォンドの山間地域や村を背景として、売り物屋のホ・センウォンとソン家の娘の一夜の縁を描いた、詩的で切ない情緒を描いた。1936年、『朝光』の10月号に、初めて発表されたこの作品は、当時にも人気があり、1967年には、映画として、1986年には、テレビの文学館でドラマとして製作された。2012年にはアニメーション化され、第17回プサン国際映画祭に出品された。

2013年に創立された(財)カンウォンド道立劇団は、ピョンチャンオリンピックを文化オリンピックとして実現したいという念願から創立された。毎年、作品の開発に念を入れ、『ホナンソルホン』、『DMZ童話』、『蕎麦の花咲く頃』など、新作が生まれ、その中でも最も世界に通用するだろうと評価された、この作品を文化オリンピック、道立劇団の代表公演として選ぶに至る。

#### 『蕎麦の花咲く頃』のあらすじ

1900年代のピョンチャン、ボンピョン市場、売り物屋のホ・センウォンは、一匹の老いたロバと友人チョー・ソングルと市場を転々とするうち、若手の売り物屋のドンイに出会う。客人にも人気があり飲み処の女主人にも気にいられたらしい、ドンイが気にいらないホ・センウォンは彼に暴力を振るうことになる。だが、むしろドンイはホ・センウォンのロバを救うことになり、二人は月夜の道を歩きながら、お互いの過去の話をする。二十五年前の初恋の話を語り、ドンイは彼の母について語る。ドンイの母親が大切にしているチョゴリが自分が初恋の君に渡したものと同一ものではないかと思う。奇妙な二人の縁はこれからどうなることやら...

# 극단연혁

## 강원도립극단이 걸어온 길

강원도립극단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실현과 강원연극의 발전을 위해 2013년 12월 24일 창단되었습니다. 강원도립극단은 2018년 세계인의 겨울 축제를 대비하여 강원도가 낳은 인물, 강원도가 품은 이야기를 재료로 수준 높은 공연을 개발, 공연하고자 합니다. 강원도립극단은 “진정 강원도적이고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세계적이다.” 라는 믿음 아래 우리 국민뿐 아니라 세계인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 ○ 2013년

12월 24일 (재)강원도립극단 창단 개소식

### ○ 2014년

04월 25일 <허난설헌> 창단공연 - 춘천

05월~06월 <허난설헌> 순회공연 - 속초, 평창, 원주, 태백, 강릉

07월 03일 제5회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 인 경주 참가 <허난설헌> - 경주

07월 08일 강원도민의 날 행사 참가 - 퍼포먼스<하나된 강원도민>

09월~10월 <허난설헌> 순회공연 - 동해, 홍천, 횡성, 인제

### ○ 2015년

01월~02월 2015년 배우술(術)훈련(1차) : 화술, 신체훈련

04월~06월 2015년 배우술(術)훈련(2차) : 모듬북 난타

06월 <DMZ 동화> 순회공연 - 춘천, 철원, 고성

10월 <DMZ 동화> 순회공연 - 원주, 강릉

### ○ 2016년

01월~02월 2016년 배우술(術)훈련(1차) : 극작법

01월 2016년 배우술(術)훈련(2차) : 화술&무대 움직임

06월 <메밀꽃 필 무렵> 순회공연 - 횡성, 동해, 철원

07월 26일 제7회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 인 경주 참가 <메밀꽃 필 무렵> - 경주

07월 31일 <메밀꽃 필 무렵> 순회공연 - 양구

09월~10월 <메밀꽃 필 무렵> 순회공연 - 양양, 원주, 평창, 영월, 속초, 인제

### ○ 2017년

02월~05월 올림픽 붐업 <메밀꽃 필 무렵>시즌2 순회공연 - 강릉, 대구, 홍천, 춘천, 서울, 정선, 평창

# History

## History of Gangwon Provincial Drama Theater

Gangwon Provincial Drama Theater(GPDT) was established on December 24, 2013 to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the regional theatrical culture and cultural success of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s. GPDT aims to create and produce high-quality plays based on regional stories or those about figures born in the Gangwon region. GPDT tries to communicate with global citizens as well as national ones, believing that what is beautiful in Korean and Gangwon-ic way is beautiful in the global way as well.

### ○ 2013

12. 24. Gangwon Provincial Drama Theater is established.

### ○ 2014

04. 25. 〈Huh Nansulhun〉 is produced as the Theater' s first production in Chuncheon.

05.-06. 〈Huh Nansulhun〉 is presented in a tour across the Gangwon region such as in Sokcho, Pyeongchang, Wonju, Taebaek, and Gangneung.

07. 03. The Theater participated in The 5th Korean National And Public Theater Festival in Gyeongju with 〈Huh Nansulhun〉.

07. 08. The Theater participated in The Day Of Gangwon Citizens with the performance 〈We Are One〉.

09.-10. 〈Huh Nansulhun〉 is presented in a tour in Donghae, Hongcheon, Hoengseong, and Inje.

### ○ 2015

01.-02. The Theater holds the training session, "The Art of Act 2015 – the 1st part" , which is about speech and physical training.

04.-06. The Theater holds the training session, "The Art of Act 2015 – the 2nd part" , which is about the drumming skill "Nanta."

06. 〈The Fairy Tale in DMZ〉 is presented in a tour in Chuncheon, Cheorwon, and Goseong.

10. 〈The Fairy Tale in DMZ〉 is presented in a tour in Wonju and Gangneung.

### ○ 2016

01.-02. The Theater holds the training session, "The Art of Act 2016 – the 1st part" , which is about playwriting.

01. The Theater holds the training session, "The Art of Act 2016 – the 2nd part" , which is about speech and stage movement.

06. 〈When Buckwheat Flowers Bloom〉 is presented in a tour in Hoengseong, Donghae, and Cheorwon.

07. 26. The Theater participated in The 7th Korean National And Public Theater Festival in Gyeongju with 〈When Buckwheat Flowers Bloom〉.

07. 31. 〈When The Buckwheat Flowers Bloom〉 is presented in Yanggu.

09.-10. 〈When Buckwheat Flowers Bloom〉 is presented in a tour in Yangyang, Wonju, Pyeongchang, Yeongwol, Sokcho, and Inje.

### ○ 2017

02.-05. 〈When Buckwheat Flowers Bloom〉 Season 2 is presented in the Heating Up Olympics Tour in Gangneung, Daegu, Hongcheon, Chuncheon, Seoul, Jeongseon, and Pyeongchang.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 강원연구원 301호  
전화 | 033-255-0497